



海外業界動向

세계 Flat Display시장 '96년 93억불

세계의 Flat Display시장은, '90년의 40억 1,000만불에서 '93년에는 61억 1,000만불, '96년에는 92억 9,000만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Electronics Trend Publication사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용전자기기 부문의 수요가 15억 8,000만불에서 38억불로 전산기 디스플레이용은 10억불에서 28억불로, OA기기용은 6억 4,000만불에서 12억불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93년의 종별 수요는 液晶(CCD)이 28억 3,000만불('90년 13억 9,000만불) 발광다이오드(LED)가 12억 1,000만불(9억 8,000만불) 真空螢光表示管이 9억불(6억 8,000만불) Electro Luminescence(EL)이 6억 8,000만불(2억 4,000만불) Plasma Display가 4억 7,000만불(3억 2,000만불)이 예상된다.

또한 금후의 연구개발에서는 Laptop 전산기용 디스플레이에 특히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반도체시장 8% 확대

美 반도체 메이커인 Texas Instruments社는 세계 반도체시장은 금년에 8% 확대되어 590억불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I社가 달라스에서의 증권아날리스트회의에

서 표시한 금년의 예측에 의하면, 미국시장은 11% 성장, 구주시장은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sia 태평양시장은 18% 확대되었는데, 이 중 일본의 반도체시장은 3% 신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세계전체에서 내년은 금년보다 성장률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점유율이 두 자리의 신장을 나타낸 TI사는 금년이 동사의 반도체생산에서 특정용도제품의 생산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광통신기기·케이블 시장, 연율 20% 신장

광통신기기·케이블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작년의 35억 7,000만불에서 연율 20% 신장하여 '95년에는 75억 2,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의 매상고는 작년의 16억불에서 '95년에는 32억 9,000만불로 확대, 최근의 신장은 연율 2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光Cable의 부설거리는 전세계에서 연 563만km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멀티 모드 타입은 78만km에 머무르고 있다. '95년에는 이것이 1,100km로 신장하고 이 중 싱글 모드가 933km로 예상되고 있다.

기기에서는 송신기, 수신기, 코덱터, 교환기, 멀티 플렉서가 14억 1,000만불로, 작년의 매상

고의 약 40%를 차지했다.

'95년의 매상예상은 31억불, 최근의 신장은 평균 2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CC에 의하면, 미국의 생산은 연율 23.5%로 평균을 상회하는 신장을 보여, '95년에는 25억 8,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3억불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미국기업이 제품수출보다도 기술수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자제품의 국별·지역별 수입실적

미전자공업회(EIA)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의 미국전자공업제품의 국별·지역별 수입액은 일본이 276억불이 올랐고, 싱가포르(70억불), 캐나다, 대만(각각 64억불)이 여기에 추격하고 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은 캐나다가 최대의 시장인데, 통신기기, 컴퓨터 외 TV와 음향기기인 반도체를 포함하여 모두 107억불로 제2위인 일본이 63억불, 영국 56억불, 독일 53억불의 순서였다.

전체의 전자공업제품 수출입은 수출이 716억불, 수입은 768억불로 52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적자 대폭 개선

미 상무성이 발표한 '91년 12월의 미 무역적자는 관련베이스에서의 59억 3,600만불로 작년에 비교하여 42.3% 증가하였다.

그러나 작년 1년간의 적자액은 전년대비 34.9%減인 662억 470만불로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미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연간적자로서는 1983년의 524억불 이후 8년만의 저수준이다.

이 중에서 작년의 대일적자는 434억 3,620만불이며 역으로 작년은 5.7% 상회하여 적자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5.6%에 달하였다. 대일적자 증가는 '87년 이후인데 전체의 적자가 감

소하는 가운데, 대일적자만이 증가하는 구도가 더욱 선명해짐으로써, 일본에 대한 공격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87년의 1,521억불을 피크로 그후에 축소되었으나, 작년은 수출이 항공기와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한 반면, 수입이 1.5% 감소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EC에 대한 흑자가 167억 2,760만불로 크게 신장하여, 대 한국의 적자도 감소한데 대하여 중국에 대한 적자는 104억 3,090만불에서 26억 8,900만불로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작년 12월의 수출(季節조정필)은 전년대비 2.2%減인 361억 2,920만불에 머물러, 수입은 2.3%增인 420억 6,520만불을 나타냈다.

美, 일계기업 부품 70% 이상 현지 조달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공장에서 원재료와 부품의 현지조달률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조업이 확인된 日系공장은 1,563社로 1990년의 조사보다 130개 공장이 증가했다.

부품 등의 현지 조달률에 대하여 회답을 해준 것은 931공장이었다. 현지조달률이 100%이라고 회답한 공장은 전체의 24.3%, 70% 이상 100미만은 37.8%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한 수송기계에서 현지 조달률이 70% 이상인 공장은 47.3%였다. 전업종의 평균보다는 훨씬 낮지만, '90년에 비교하면 12.7point나 상승하고 있다. 이외 현지 조달률이 낮은 것은 전기·전자기계(70% 이상은 38.6%), 정밀기계(同 39.5%) 등이다.

미국 '91년 전자기기 공장 출하액

미 전자공업회(EIA)는 28일, 작년에 미국의 전자기기의 공장출하액이 2,710억 3,900만불로

전년대비 2.0%의 신장에 머물렀다고 발표하였다.

가정용 전자기기가 전년대비 11.6%증, 의료용 전자기기가 동 7.5% 증으로 각각 확대되는 한편, 규모가 큰 컴퓨터가 동 1.7%감, 산업용 전자기기가 동 2.5% 감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은 전년대비 6.9% 증인 716억 400만불, 수입은 동 7.2% 증인 2,300만불로 작년 수준에서 11.1% 확대되었다.

미국 '95년 위성통신기기시장, 倍增

시장조사회사 F&S에 의하면, 가정용의 TV·Radio, 유선TV용 위성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기업용의 TV, 통신시스템 및 위성통신의 이동체전화는 금후 대폭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것이 시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별로는 地球局설비의 수요가 작년의 14억불에서 43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주공간부문(Intelsat 위성을 포함)이 12억불에서 21억불로 증가하여 위성본체의 시장도 5억 5,000만불에서 10억불로 거의 배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S에 의하면, 위성통신이 보급되어도 이것이 음성통신분야에 침투될 가능성이 적어 음성통신에는 오히려 해저케이블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을 보충하는 것은 기업의 TV 활용(社內뉴스, 신제품정보, 사원교육)과 데이터통신이다.

현재, 미국의 위성통신 지상기기시장의 구성은 가정용안테나가 43%, 기업용 통신설비가 3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CATV가 9%, Intelsat 등이 8%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델社, Notebook型 PC 일본 진출

美, 델사가 일본의 Notebook형 퍼스컴시장에 진출했다.

동사에서는 지금까지, 三井物産 Digital을 통

하여 Desktop형의 80486CPU 탑재기「450DE」를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Desktop형 뿐만 아니라, 작년 가을에 Comdex展에서 발표한 Notebook형의 「325NC」도, 금년 5월 하순을 목표로 일본에서 발매할 계획이다.

델社의 일본법인(本社 二東京都品川區)의 飯塚克美사장에 의하면, 5월 하순의 Business Show에서 三井物産 Digital를 출품, 同機를 試演하였다.

325NC는 Showp의 9인치 STV형 LCD를 사용하고 있다. 배터리는 니켈水素와 Ni-cd 양쪽을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현재, 미국에서 3,999불(60M Byte, Hard, Drive機)로 판매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50~60만엔으로 예정하고 있다.

美, 사적녹음녹화 저작권법 개정(안)

사적녹음녹화 문제에 관한 보수청구권제도 도입을 향한 저작권법 개정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자간(하드,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투입(정수액외)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기간중의 법안성립은 미묘한 단계에 와있다.

'91년 저작권 심의회가 제안한 내용은 ① 사적녹음녹화는 종전대로 자유롭게 하고, 그 대상으로서 제도를 도입한다. ② 보수는 기기·기재의 메이커 등이 기기 또는 기재의 판매에 즈음하여, 그 가격에 상승하여 이용자로부터 모집 ③ 보수지불의 대상은 가정내에서 녹음과 녹화의 쌍방으로 하고, 또한 기기, 기재의 쌍방으로 한다. ④ 보수를 받은 권리자는 저작자, 實演家, 레코드제작자로 한다로 하고 있다.

또한, 하드·소프트의 당사자간은 정수액(보상액) 분배의 방법, 또한 저작권 사상에서 보수청구권 제도를 국민에게 어필하는 방법까지 협의에 들어갔다. 정수·분배에 대해서는 빨리 당사자간의 합의를 본 미국의 그것과 비슷한데, 세부적인 단계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도 얽혀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法案提出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당초 목표가 된 3월중의 징수·분배책 합의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강력하여, 5월의 법안제출 예정은 약간 어긋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청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여 「3월중에 정리되면 늦어도 6월에는 법안제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회 會開期間도 얽혀서 미묘한 단계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수청구권제도도 도입의 지연은 기대의 신상품인 DCC, MD의 상품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양 New Media 모두 9월경에는 일제히 상송할 예정인데, Hard, Soft 업계 모두 토탈 Audio 마켓 확대를 향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

日本電氣, 차세대 반도체메모리 4종 개발

일본전기는 18일, 액세스 타임 30Nano초의 64Mbit DRAM, 5V 단일 전원에서 동작하는 16Mbit Flash 메모리, Access Time 12Nano초의 4Mbit BicMOS·SRAM 등 고집적, 고속화를 도모한 차세대 반도체메모리 4품종을 개발했다. 16Mbit SRAM의 개발은 세계에서도 최초인데 이 개발성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ISSCC'92(國際同體回路會議)에 발표됐다.

64Mbit DRAM은 세계 최고속의 액세스타임 30Nano초를 실현한 것이며 또한 불량 셀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스페어 셀로 치환하는 欠陥自動 Test/欠陥自動救濟기능을 탑재하거나 低전압화와 저잡음화에 의한 신뢰성의 향상 등, 실용레벨에 가까운 기술개발이다. 프로세스 기술은 최소 선폭 0.4 마이크론·3중 CMOS 2층 알루미늄 배선을 이용하여 9.55+19.48mm의 Chip상에 약 1억 4,000만 素子を 탑재하고 Bit구성은 64MWord×1bit 또는 16Mword×4bit로 이루어졌다.

한편 16Mbit 플래쉬 메모리는 DSA 구조 및 Gate부전압 채널 소거방식의 채용, 전기디스크

의 치환 등에 적합한 5V 단일전원 동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日立製作所 세계MOS 메모리시장 Top

'91년 세계 MOS 메모리 매장고에서는 日立製作所가 '90년의 3위에서 톱을 차지했는데 미조사회사 Dataquest에 의하면 작년에 日立가 15억 3,800만불(잠정)을 매상하였고, 제작년에 수위였던 동지의 15억 2,900만불에 약간 차이를 냈다.

'90년에 2위였던 일본전기도 매장고를 3,200만불로 하락시켜, 3위로 후퇴하고 있다.

MOS 메모리로 매장고를 신장시킨 것은 미 Micron Technology사이다. '90년 대비 58% 신장되어, 순위도 14위에서 9위로 베스트 텐에 들어갔다. Micron사는 금년에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마테크(美官民合同半導體製造會社)에서 탈출하고 있다.

한국세의 신장도 현저한데 삼성전자는 5위로 순위는 변하지 않았으나, 금액에서 17% 신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전자는 倍増의 2위 4,800만불을 매상, 22위에서 17위, 금성사도 2.3배인 2억 2,500만불을 매상하여 25위에서 19위로 하락하였다.

구주세는 독 Siemens, 佛·伊 합작의 SGS Thomson이 매상, 랭킹도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DRAM만으로 한정하면 동지가 금액에서 14%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여전히 톱, 이하 삼성전자 12.3%, 日立 10.2%, 일본전기 10%의 순위를 나타냈다.

